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성과

2013.07.18 |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출판한 책 “Work sharing during the Great Recession, New developments and beyond” 에 따르면 지난 2008년~2009년 경제위기 시기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통해 고용수준을 지킬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했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통해 고용률 진작과 함께 노동자들의 삶을 질을 개선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90시간으로 2010년보다는 줄어들었으나, 멕시코(2,250시간), 칠레(2,047시간) 등과 함께 여전히 가장 길다¹⁾. 이처럼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용률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지난 대선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유력 후보 모두의 주요 공약으로 부각되었다. 이를 통해 개별 노동자의 긴 노동시간은 줄이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추가로 노동자를 고용해 일자리는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들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선 때 제시했던 정책들도 여전히 공약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ILO가 최근 출판한 책에 따르면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지난 경제위기 동안 여러 국가들에서 고용수준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하는 70% 고용률과 긴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저자인 Ghosheh의 말처럼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돕는 여러 방안 중 하나” 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률 증진을 달성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삶을 질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OECD 평균은 1,765시간임. 통계는 OECD 홈페이지를 참조함.



금융위기 기간,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일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나
(Work sharing can save jobs in times of crisis)

2013년 6월 18일
국제노동기구(ILO)

경기침체기 동안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숙련 수준을 유지하고 기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LO가 새로 발행한 책에 따르면 2008년~2009년 경기침체와 그 여파가 미치는 기간 동안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수준을 유지하는데 널리 이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LO의 연구자 Joe C. Messenger와 Naj Ghosheh에 의해 출판된 “Work sharing during the Great Recession, New developments and beyond” 는 경기침체기에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다시 여러 국가들에서 시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만약 위기 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제대로 설계되어 시행된다면, 그 결과는 ‘윈-윈-윈 해결책(win-win-win solution)’ 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Messenger는 설명했다. 이는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기업은 위기를 넘기고 경제가 다시 회복될 때를 대비할 수 있으며, 정부와 우리 사회는 실업과 사회적 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종류의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나누기에는 두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기업이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줄어든 노동량을 지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의 노동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예로는 독일의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0만 개의 일자리가 보전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제위기가 절정이었던 2009년 5월 14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일본 역시 EAS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통해 약 37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통해 2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얻었다.

이와 함께 터키의 노동시간 줄이기 프로그램 역시 10만개의 일자리를 보호했다.

미국에서는 2009년 주(state) 수준의 아주 작은 노동시장 프로그램만으로도 16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보호했고, 이는 최근 미국 연방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일자리 나누기 법안을 제정하도록 유도하였다.

경제침체기 고용수준을 유지하는데 있어 위기와 연계된 일시적인 일자리 나누기 방안의 성공은 흥미로운 질문을 불러왔는데, 그것은 “더욱 장기적인, 혹은 영구적인 이와 비슷한 정책이 고용증대를 위해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두 번째 일자리 나누기 방안은 정부가 추가적인 고용과 고용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아무 때고 시행될 수 있다.

장기적 방안으로서의 일자리 나누기

이러한 장기적인 방안은 국가의 주간노동시간 단축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서부터 특정 산업에서의 단체협약, 세금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에 그것을 강제하는 방안 까지 다양하다.

ILO가 발행한 책에서는 전 세계적인 일자리 위기가 계속되더라도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고용에 있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행된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터키, 미국, 우루과이 등 전 세계의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성공의 요인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이 책은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균형 잡힌 자격 기준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상 자격요건
- 노동시간 단축 수준이나 패턴에 있어서의 유연성
-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보조
- 사중손실효과(deadweight effects)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일자리 나누기 보조금에 대한 타당하고 확고한 시간 기준

저자인 Ghosheh는 “두 가지 형태의 일자리 나누기 모두 마법의 특효약은 아니지만, 고용증진, 일과 삶의 균형 개선,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성 증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돕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고 결론짓고 있다. 🌱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215785/lang--en/index.htm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2013년 새사연의 '세계의 시선' 목록

2013년 7월 18일 현재

아젠다	발간 일	제목	작성자
세계의 시선	1/11	세계 경제 침체에 가려져 놓쳐서는 안 될 문제들	이수연
세계의 시선	1/28	금융위기와 가계부채, 그리고 신용 협동조합	김병권
세계의 시선	1/25	경제위기와 보건의료정책, 그리고 건강	이은경
세계의 시선	1/27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2013년 경제의 5대 위험	김병권
세계의 시선	2/1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	김수현
세계의 시선	2/12	소득 불평등에 대한 미국 보수의 반격?	여경훈
세계의 시선	2/14	세계적 불황에 누가 가장 취약한가?	최정은
세계의 시선	2/19	주민들의 건물 공동소유로 높은 임대료 극복하기	이수연
세계의 시선	3/9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가 평가하는 차베스	김병권
세계의 시선	3/12	단기 자본 수익에서 벗어나는 것이 창조경제	이수연
세계의 시선	3/21	싱가포르가 저출산에 대처하는 방법	최정은
세계의 시선	3/26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김수현
세계의 시선	3/29	뱅크런과 구제금융 ABC	여경훈
세계의 시선	4/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백년만의 영국 연금개혁	이은경
세계의 시선	4/9	영국 아빠들이 '출산휴가' 를 거부하는 이유	최정은
세계의 시선	4/16	아베가 쏘아 올린 세 가지 화살	여경훈
세계의 시선	4/23	고용 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정책 필요	김수현
세계의 시선	4/30	자신의 국민과 싸운 '철의 여인' 대처	김병권
세계의 시선	5/7	재정 긴축을 놓고 충돌하는 세계	이수연
세계의 시선	5/14	'복지 여왕' 의 신화에서 벗어나라	이은경
세계의 시선	5/21	일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경험의 시사점	최정은
세계의 시선	5/24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	김병권
세계의 시선	5/28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	여경훈
세계의 시선	6/4	OECD, 한국에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권고	김수현
세계의 시선	6/10	동아시아 산업정책 경험과 아프리카의 발전	김병권
세계의 시선	6/19	퀘벡 상티에 2006년 선언, "사회적 경제는 옳았다!"	이수연
세계의 시선	6/25	맨큐의 1%를 위한 변론	여경훈
세계의 시선	7/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	김병권
세계의 시선	7/11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여경훈
세계의 시선	7/12	고래의 죽음이 살린 바다 밑 생태계	김병권
세계의 시선	7/18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성과	김수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